

마태오 복음서 16장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표징을 요구하다(마르 8,11-13; 루카 12,54-56)

1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¹⁾

- 1)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가르침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에는 하나가 된다.
- 2) 이들의 요청은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나아가서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2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저녁때가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3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궂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한다.

- 1) 적대자들은 세상의 지식과 판단력은 있어도 진리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판단력은 없다.
- 2) ”시대의 표징“은 본디 메시아가 오는 때에 나타나는 것들이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거나 표징(예컨대 병자들을 고치심과 빵을 많게 하심),²⁾ 또는 표징 그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수 있다.³⁾

4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남겨 두고 떠나가셨다.

- 1)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였으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표징을 요구한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신다.
- 2) “요나의 표징”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예표이다. 이 표징 앞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떠나가신다.

1) 1코린 1,22 :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2) 마태 11,3-5 :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3)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15쪽, 각주 2.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마르 8,14-21)

- 5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 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 7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며 저희끼리 수군거렸다.
- 8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 9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먹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 10 그리고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이 먹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 11 내가 빵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님을 어찌하여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 12 그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 1)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체험하였으면서도, 아직도 현실적인 걱정애 머물러 있다. 제자들의 신앙의 눈이 아직 영글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바리사이들은 보수성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였지만, 본질적인면을 왜곡하고 외적인 규율에 집착함으로써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이다.
- 3) 사두가이들은 바리사이에 비해 자유분방하였다. 이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그 어떠한 성경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실과 결탁한 세속주의에 빠진 자들이다.
- 2) 누룩은 바로 이런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드의 위선적인 가르침을 뜻한다.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마르 8,27-30; 루카 9,18-21)

- 13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4) 루카 복음에서는 누룩이 ‘위선’을 가리키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함께 ‘헤로데의 누룩’도 나온다(위, 각주 5 참조).

루카 12,1 :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마르 8,15 :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15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16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1)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는 소문을 예수님께 전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다고 볼 수 있다.⁵⁾
- 2) 베드로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신앙고백이 이어진다.
- 3)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의 아들”은 천사들, 선택된 백성, 신심 깊은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예언자에게 적용하였다. 이 표현은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하느님의 선택과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과 유례가 없는 부자(父子) 관계를 맺으신 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비길 데 없는 사명을 부여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이다.⁶⁾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 1) “살과 피”는 자연적인 나약성을 지닌 인간 전체를 가리킨다.⁷⁾
- 2) ‘알려 주다’는 ‘계시하다,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이다.

18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⁸⁾

5) 위, 116쪽, 각주 10 참조.

6) 신명 5,26 :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 계신 하느님께서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 3,10 :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일어날 이 일로써, 살아 계신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히위족, 프리즈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사무 17,26 :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씻어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 준다고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이사 37,4 :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랍 사게의 말을 들으셨기를 바라오. 그는 살아 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자기 주군인 아시리아 임금에 보낸 자요.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들으신 그 말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오. 그대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7) 집회 14,18 : 무성한 나무의 잎사귀들이 어떤 것은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아나듯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 세대도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태어난다.

1코린 15,50 :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살과 피는 하느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갈라 1,16 :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8) 에페 2,20 :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 1) 베드로는 ‘바위,반석’이라는 뜻이다.
- 2) ”교회“는 ‘모임, 회중, 집회’를 뜻한다. 예수님께서 건립하시고 베드로가 그 기초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가리킨다.⁹⁾
- 3) ”저승의 세력“은 죽은 이들의 세계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죽음 속에 가둘 수 없다.

19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¹⁰⁾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20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열쇠”는 권한을 뜻하며, 그 권한은 바로 지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사죄권을 뜻한다.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마르 8,31-33; 루카 9,22)

21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 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수난을 예고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흘 만에”가 아니라,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것이다.
- 2) 세 차례에 걸친 예수님의 수난 예고에는 하느님의 계획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강조되고 있다.¹¹⁾

22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

9) 앞, 각주 16 참조.

가톨릭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그의 수위권(首位權)을 이어받는다라는 교리의 바탕으로 이 본문을 제시한다. 동방 교회의 전통에서는 모든 교구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주교가 베드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계승한다고 여긴다. 개신교 주석가들도 초창기에 베드로가 지녔던 특권적 위치와 그가 수행한 특수한 역할을 모두 인정한다.

10) 이사 22,22 :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리니 그가 열면 달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묵시 3,7 :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거룩한 이, 진실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달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11) 앞, 117쪽, 각주 20 참조.

는구나!”

- 1)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는 수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막아선다. 곧 하느님의 뜻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 이는 곧 사탄의 행위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 2) 베드로는 인간적인 죽음만을 생각하였지, 그 죽음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마르 8,34—9,1; 루카 9,23-27)

-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 2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 27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 1) 예수님께서는 ‘따름’에 관한 피상적인 생각을 물리치신다. ‘따름’은 예수님을 그냥 뒤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 2)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하느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기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 3)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은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장차 ‘갚아주실 분’이시므로, 예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¹²⁾
- 4)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은 임금으로서 재판하고 통치하러 오는 것이다.

12) 위, 118쪽, 각주 28 참조.